

Packing Machinery Market Trends in Germany

독일의 포장기계시장 동향

Writer

박소영

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

Contents

- I. 독일 식품 및 포장기계 시장 규모
- II. 독일 식품 및 포장기계의 시장 동향 및 전망
 - 1. 스마트 패키징
 - 2. 브렉시트 리스크
 - 3. 2019년 시장 상황
 - II. 수출규모 및 대상 국가
 - III. 수입 시 관세율
 - IV. 주요 제조기업
 - V. 식품 및 포장기계에 대한 요구사항
 - 1. 고품질 선호
 - 2. 위생공정
 - 3. 정밀성
 - VI. 관련 협회 및 단체

※ KOTRA 글로벌원도우

(<http://news.kotra.or.kr/kotranews/index.do>) 자료 제공

I. 독일 식품 및 포장기계 시장 규모

2017년 독일 식품 및 포장기계 생산은 전년대비 4.8% 증가한 총 140억 유로를 기록해 신기록을 경신했다. 2018년에도 8%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총 152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며 다시금 신기록을 경신했을 정도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. 2018년 초 이미 다수의 제조사가 높은 수주율을 보이며 상반기에 이미 높은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.

포장기계의 생산은 전년대비 8% 증가한 71억 유로를 기록했고 (2017년 66억 유로, +3% 증가), 이 가운데 음료수 포장기계 생산은 전년대비 1% 증가해 전년과 유사한 22억 유로를 기록했다. 독일 식품 및 포장기계 제조 분야의 수출 비중은 총 기계 분야 수출 비중(약 78%)을 상회하는 84%를 차지하며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지고 있다.

2018년 독일 총 식품 및 포장기계 수출은 전년(85억 유로, +1.6%) 대비 6.1% 증가한 90억 유로를 기록하며 호조세, 특히 주요 판매지역인 대EU 수출이 9% 증가했다. 또한 주요 시장인 미국, 중국, 러시아에 대한 수출 역시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, 이 밖에 브라질, 일본, 한국, 인도 등으로도 뚜렷한 수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.

II. 독일 식품 및 포장기계의 시장 동향 및 전망

1. 스마트 패키징

포장기계 분야에서는 아직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, 혁신 기술이 과거 구매 프로세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.

특히 제품 포장 시 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(AR) 기술 도입으로 고객은 별도의 시간 손실 없이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수령할 수 있고, 고객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제품의 시장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.

뒤셀도르프 국제 포장 전시회 ‘인터팩(Interpack)’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AR 비중이 850~900억 달러 규모로 증가 예상할 것이라고 한다. 또한 2019년 전 세계 AR 기술 관련 지출 비용이 전년대비 70% 증가한 2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, 미국, 독일, 프랑스, 중국 등이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.

2. 브렉시트 리스크

최근 영국과 유럽연합(EU)이

2020년 말 종료 예정인 브렉시트 전환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식품 및 포장 관련 산업에서도 의약품 마케팅이나 식품 라벨 등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주의해야만 한다.

또한 유럽 통관 시 기재해야 하는 EORI(Economic Operators'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) 번호를 비롯해 EU 유기농 제품 로고나 EU 엠블렘(Emblem) 등 일련의 신규 발급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.

3. 2019년 시장 상황

전 세계 가공 및 포장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와 더불어 호조를 띠었던 2018년 대비 2019년의 경우 최대 2%에 이르는 증가세를 보였다. 2019년 4월 누계 기준 관련 매출은 전년대비 매출을 상회했지만 글로벌 무역분쟁 및 다수 지역의 정치 위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신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

했다.

아직 공식적으로 세부 품목별 발표는 없으나 미·중 무역분쟁 및 기타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 중심의 독일 기계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2019년 상반기 총 수주가 전년대비 9% 감소했고, 6월의 대내 수주의 경우 전년대비 16% 감소했다.

이로써 독일 기계 및 설비제조협회(VDMA)는 6년 만에 처음으로 -2%에 이르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.

II. 수출규모 및 대상 국가

2018년 독일의 HS 842230* 기준 총 수출은 27억 6,600만 달러 규모이며, 전년대비 7.98%가 증가했다.

주요 수출국은 미국, 중국, 프랑스, 멕시코, 러시아, 이탈리아 등이며, 대한민국 수출은 6743만 달러로 전년대비 32.22%를 기록(수입국 11위)하며 전년 수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다.

* 해당 품목(HS 84223020 : 병이나 그 밖의 용기(병·강통·상자·자루 등의 봉합용·봉지용 기계)은 EU HS 코드 분류상 허위 코드 분류 없이 6단위(842230)로만 분류된다.

[표 1] 독일 (HS 코드 기준) 주요 수출국 현황

(단위 : US\$ 천, %)

순위	국가	금액 (US\$ 천)			점유율 (%)			전년대비 증감률 (%)
		2017년	2018년	2019년 4월	2017년	2018년	2019년 4월	2019년 4월/2018년 4월
0	전 세계	2,561,442	2,765,796	737,897	100	100	100	-15.7
1	중국	202,399	247,136	99,922	7.90	8.94	13.54	15.46
2	미국	276,378	292,626	84,764	10.79	10.58	11.49	-12.19
3	프랑스	107,256	134,799	36,569	4.19	4.87	4.96	-0.97
4	영국	91,536	77,851	34,426	3.57	2.81	4.67	51.79
5	스페인	37,968	74,849	32,761	1.48	2.71	4.44	141.67
6	브라질	21,092	59,203	30,563	0.82	2.14	4.14	92.43
7	대한민국	51,003	67,434	28,822	1.99	2.44	3.91	-0.97
8	이탈리아	59,040	87,384	24,351	2.30	3.16	3.30	-29.08
9	스위스	77,233	64,754	21,215	3.02	2.34	2.88	-36.82
10	벨기에	75,788	61,368	21,129	2.96	2.22	2.86	64.12

[자료 : GTA]

2019년 4월 독일 HS 842230 기준 총 수출은 7억 3,790만 달러 규모이며, 전년대비 -15.7%를 기록했다.

주요 수출국은 중국, 미국, 프랑스, 영국, 스페인 등으로 기존 순위에 변동이 큰 편이다. 대한민국 수출 역시 2,882만 달러로 전년대비 0.97% 감소했으나 수출국 중 7위로 등극했다.

III. 수입 시 관세율

병과 용기(병·깡통·상자·자루 등)의 봉합용·봉지용 기계(HS 842230)의 독일의 대한민국 수입 관세율은 0%이다. 다만 2011년 7월 이래 한-EU FTA 협정이 발효됐으나 모든 수출기업이 자동적으로

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.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 시 관할 세관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인증수출자(Ermaechtigter Ausfuhrer) 자격을 취득해야만 관세 혜택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.

IV. 주요 제조기업

1. OPTIMA packaging group GmbH

주요 생산품목은 제약, 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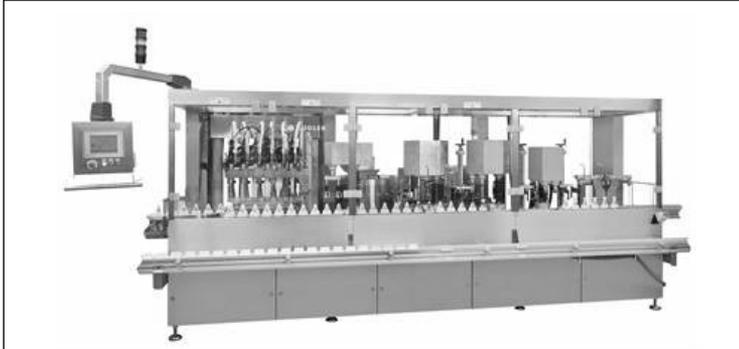
(생명과학), 소비재(식품 및 화학 산업 분야) 봉합기 등의 포장기계, 모듈형 포장기계 등이며, 연간 매출액은 4억 유로, 종업원 수는 2,400명이다(2018년 기준).

1922년 설립된 동사는 유럽, 북미, 남미뿐만 아니라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위시한 주요 아시아 국가 등 전 세계 24개국에 입지를 보유하고 있으며, 생산제품의 85%를 수출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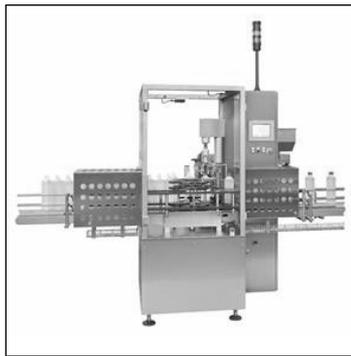
■ 홈페이지 : www.optima-packaging.com/en



▲ OPTIMA packaging group GmbH의 기계를 통해 생산된 포장재의 모습



▲ OPTIMA packaging group GmbH의 포장 및 봉합기계(Moduline)



▲ OPTIMA packaging group GmbH의 완전 자동 봉합기계 'OPTIMA V100'

■ 주소 : Steinbeisweg 20,
74523 Schwaebisch Hall,
Germany

2. Gottlieb Duttenhofer GmbH & CO. KG

1884년 설립된 Gottlieb Duttenhofer GmbH & CO. KG는 고객 맞춤형 봉합기술 관련 제품, 특수 포장재 및 솔루션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. 특히 6~216.5L의 표준화된 개별 마개, 뚜껑 및 조합 용기의 개발 및 생산, 위험등급(3, 4.1-3,

5.1-2, 6.1-2, 8, 9) 액체 및 고체 물질의 항공, 해상 및 육상 운송에 적합한 용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.

연간 매출액은 4,500만 유로이다. Gottlieb Duttenhofer GmbH & CO. KG의 봉합기계는 직경이 다른 뚜껑이 있는 용기에도 적합하며, 잠금 헤드(locking head)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■ 홈페이지 : www.duttenhofer.com

■ 주소 : Bahnhofstraße 100,
67454 Haßloch/Pfalz, Germany



▲ Gottlieb Duttenhofer GmbH & CO. KG의 봉합기계의 모습

3. GEPAS mbH(Gesellschaft fuer Produktions- und Automatisierungssysteme mbH)

주요 생산품목은 캔, 병, 플라스틱 및 금속제 튜브 등의 봉합용 기계, 각종 충전기계, 라벨링 기계 등이다. 연간 매출액은 40만 5,000유로이며, 1998년 설립되었다.

■ 홈페이지 : www.gepas-systeme.d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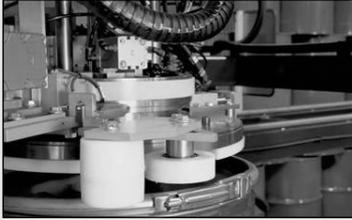
■ 주소 : Birkichstraße 5,
74549 Wolpertshausen, Germany



▲ GEPAS mbH의 봉합기의 모습

4. ROVEMA GmbH

1957년에 설립된 ROVEMA GmbH는 개별 기계에서부터 총체적 설비라인에 이르는 다양한 포장시스템을 제공(종이 봉투, 종이상자, 박스, 박스 내 종이봉투 등)하는 곳으로, 맞춤형 턴키 시스템이 강점이다. 연



▲ ROVEMA GmbH의 상자용 봉합기계 ECL

간 매출액은 1억 1,000만 유로 (2018년 기준), 종업원 수는 70명이다. 또한 동사는 전 세계 12개 지사 및 30개의 에이전시를 보유하고 있다(주로 유럽 내 거점).

■ 홈페이지 : www.niko.de/en-gb/home

■ 주소 : Industriestr. 1, 354 63 Fernwald Annerod, Germany

V. 식품 및 포장기계에 대한 요구사항

1. 고품질 선호

독일의 식품 및 포장 기계 제조 기업은 우수한 생산 관리와 유연하고 자동화된 생산공정으로 생산해 전 세계 시장의 요구수준에 맞는 고품질을 보장하고 있다.

포장기계 또는 제약 및 화장품 기계, 제과 및 제빵, 육류 가공, 기본 식품 및 사료, 음료, 과일 및 채소가공 또는 유제품 기술

등 다양한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.

특히 식품가공의 경우, 지속적으로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. 이는 위생적으로 완벽한 환경에서 정밀하게 조정된 생산프로세스를 통해 공정기술과 패키징에서 실현할 수 있다.

2. 위생공정

식·음료 생산에서 제품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생적인 기계 설계로, 기계 설비의 각 구성요소(예: 배관, 내장 밸브기술, 컨테이너 설계 및 공정과 연결)는 제품 또는 세척제의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.

이는 생산라인에서의 자동 세척 공정을 통해 가능하다.

3. 정밀성

생산과정에서 제품 변경 시 정밀하게 계획된 원료 추출공정은 정확히 레시피에 지정된 성분만 처리되도록 하므로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.

VI. 관련 협회 및 단체

독일 기계 및 설비제조협회

(Verband Deutscher Maschinen- und Anlagenbau e.V., 이하 VDMA) : 식품기계 및 포장기계 분야는 총 38개의 협회 분과 중 최대 분야로, 총 300여 개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.

■ 홈페이지 : www.vdma.org

■ 연락처 : Lyoner Straße 18, 60528 Frankfurt am Main, Deutschland

- Postfach 71 08 64

- Tel. : +49-(0)69-66 03-0

- Fax : +49-(0)69-66 03-15 11

- E-Mail : kommunikation@vdma.org

